

“지하수 마른 건 70평생 처음...농업용수 쓰며 버팁니다”

가뭄 르포-화순 춘양면 한재마을 가보니

지난 6월부터 관정 말라 군청서 생수병 공급 받아 생활 빨래도 못해...농업용수 식수 가능여부 수질검사 의뢰

“아이고 말도 못 하게 불편을 겪었지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산당가요. 가뭄에 마을 지하수가 마른 것은 내 나이 70 평생 처음이지요. 급한 대로 군에서 농업용수를 끌어다 줘서 집에서 쓰고 있더라.”

지난 6일 찾간 화순군 춘양면 한재마을 박공례(76) 할머니의 말이다. 박 할머니는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어 보이며 “물은 물인데 못먹는 물이다. 지하수 샘이 말라서 공여지책으로 농업용수를 끌어다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은 식수용 지하수를 파서 공동 물탱크에 저장한 뒤 가구별로 나눠 쓰는데 지독한 가뭄으로 지하수는 한 달 전 말라버렸다. 장맛비가 내려도 지하수에 물이 나오지 않고 주민 불편이 이어지자 화순군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여지책을 내었다. 지난해 농업용수용으로 파둔 지하수를 식수용 물탱크에 연결해 물 공급에 나선 것이다.

한재마을은 아트막한 동산에 자리하는 산간 마을로 70~80대 고령의 주민 14명(8가구)이 산다. 마을 이름인 ‘한재’의 뜻은 ‘큰 고개’라는 의미가 있다. 한 여름에도 밤에는 이불을 덮어야 잠을 잘 수 있다는 한재마을에 60여 년간 살고있는 박 할머니는 “(우리)마을에 물이 동이 난 것은 처음”이라고 “올해가 몸이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마을 지하수가 말라버린 것은 지난 6월부터다. 며칠 사이 물탱크에서 물이 나오다 말기를 반복 하더니 7월 초부터는 아예 지하수가 끊겨버린 것이다. 화순군과 마을 사람들은 올해 내내 가뭄이 이어졌던데다 비를 적게 뿌리는 ‘마른장마’가 이어지면서 결국 지하수가 말라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화순에는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평년의 절반 수준인 267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결국 화순군 상수도사업본부는 7월 4일부터 2~3일 간격으로 마을 물탱크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55t을 공급했다. 또한 1주일 간격으로 1.8ℓ 들이 생수를 총 1080통 공급했다. 하지만 군에서 물탱크에 식수를 채워도 하룻밤 사이 물이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마을 상수도관이 노후화된 탓에 새는 물이 더 많았다. 결국, 하루 건너 하루마다 물이 없이 한 달 동안 생활해온 것이다.



화순군 춘양면 한재마을 주민들이 화순군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져다준 생수를 옮기고 있다.

인근 농업용 지하수를 끌어와 물탱크에 공급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2~3일마다 식수를 끌어오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먹는 물은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화순군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농업용수용으로 파둔 지하수를 급하게 마을 상수도에 연결한 뒤, 현재는 식수용으로 사용 가능하지 확인하기 위해 민간연구소에 수질 검사를 맡겨줬다”며 “연로한 마을 어르신들이 물 때문에 고생을 겪게 돼 죄송할 뿐”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수도를 틀면 물이 나와 그나마 다행”이라고 답했다.

한편 제5호 태풍 ‘송다’가 8월 초 광주·전남에 비를 뿌리고 갔지만 가뭄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화·보급·널도 등 안도지역 일부 도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전남에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주안댐의 저수율은 36.2%에 그치고 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흠뻑쇼 늘씬빵빵 아가씨 집결, 눈요기” 문자 논란

여수 버스회사, 운전원에 보내 네티즌 “성희롱성 발언” 비판

여수의 한 버스회사가 지난 6일 여수에서 열린 가수 사이의 ‘흠뻑쇼’ 당시 운전원들에게 성희롱성 단체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수 한 버스회사가 흠뻑쇼 당일 오전 회사 소속 운전원 180명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확산하고 있다.

영업부 명의로 보낸 메시지에는 행사야 열린 전남 종합운동장 인근의 버스터미널 일대가 혼잡하다며 운전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전국에서 늘씬빵빵한 아가씨들이 전부 집결하니(3만명) 오늘 하루 눈요기하신

다고 생각하시고 수고하세요”라는 문구가 있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회사 측은 운행 시간이 길어지자 운전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과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사과했다. 당시 행사는 오후 6시 40분부터 3시간 동안 전남운동장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3만명의 관람객이 찾아 성황을 이룬 가운데 관람객 편의를 위해 터미널 버스 배차 간격이 20분 늘어나고 운행 마감 시간도 기존 오후 11시 30분에서 이튿날 오전 1시 10분까지 늦어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서 기사들이 힘들어했다”며 “적려 차원에서 재밌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대표차’ 중고차라 속여 판 뒤 다시 흠친 외국인 일당 검거

영암군에서 ‘대표차’를 판매한 뒤 차를 다시 흠쳐오는 방식으로 300여만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불법체류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은 캄보디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A

(35)씨와 B(32)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영암군 대불산단에서 근무하는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 C(26)씨에게 중고 K5차량을 385만원에 판매했다. 이후 여분의 차키를 들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철거공사 따줄게” 뒷돈 챙긴 학동참사 브로커 2명 실형

광주지법 “죄질 극히 불량”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한 브로커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브로커 주모(7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사 수주 비리는 부실공

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까지 문흥식(62)씨와 함께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 수주를 위해 힘을 써주겠다고 업체 3곳으로부터 총 6억4000만원의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다윈이앤씨(석면 철거),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 효창건설(정비기반시설 철거)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이 중 효창건설에서 받은

5000만원은 단독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총공사비 4630억원)의 철거 사업은 194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일반건축물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고 석면·지장물 철거와 정비 기반시설 공사는 조합에서 하도급 업체를 정했다. 학동 4구역에서는 지난해 6월 9일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또래 여중생 집단폭행 여중생 4명 검찰 송치 가해 학생 1명은 폭행 영상 인터넷 게시

또래 여중생 한명을 집단 폭행하고 영상까지 퍼트린 여중생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27일 광주시 서구 지평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여중생 4명을 지난 5일 특수상해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 중 1명은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게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주먹으로 수 차례 피해 학생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담뱃불로 얼굴, 팔 등 신체를 지지는 일명 ‘담배빵’을 해 상해를 입혔다. 가해 학생들은 이성 관계, 뒷담화 등을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당시 폭행 현장에는 “싸움 구경하러”는 가해 학생의 메시지를 받고 찾아온 학생들까지 총 20여명이 모여 있었으나 가해

학생 4명 외 추가 입건·송치된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출동 당시 현장에 피해·가해 학생의 남학생 5명이 더 있었으며 이들이 경찰 신고를 주도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은 없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5일 청소년비행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폭행 현장을 포함해 서구 3개소를 순찰강화 필요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투자자 모심

1. 자금 - 10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주식회사 오 천
H. 010-3605-5000

신안동, 대인동, 땅, 매매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3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200만원씩, 조정가

문의. 010-3605-5000